카드사-가맹점 비용 타령에 단말기 교체 미적

위변조 방지 IC카드 '효력 제로'

IC카드는 100%, 단말기 보급은 20% 그쳐

신용카드가 마그네틱카드에서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카드로 100% 가까이 바뀌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카드를 쓰는 가맹점에 보급된 IC카드용 단말기는 20%대에 그쳐 카드 복제 위·변조 등 신용범죄에 노출돼 있다.

가맹점의 대부분 단말기는 신용·현금카드 복제가 가능한 마그네틱카드 전용이어서 보안기능이 강화된 집적회로 내장카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지방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신용카드의 IC카드 보급률은 96%에 달했다. 최근 6개월간 사용실적이 있는 카드는 IC카드가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맹점의 IC카드용 단말기 보급률은 23%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 복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2003년 모든 신용카드를 위·변조가 어려운 IC카드로 2008년말까지 교체하고 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순수 마그네틱카드 발급을 중단하고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수천만장 찍어냈다. 뒷면에는 기존의 마그네틱 바가 있고 앞면에 IC칩이 내장된 형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IC카드를 발급하는 동안 가맹점에 IC카드용 단말기가 보급되지 못해 자칫 반쪽짜리 카드가 될 상황에 처해있다.

가맹점주나 소비자들이 기존의 마그네틱 결제 방식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데다, 가맹점주 등이 대당 18만원 정도 드는 IC카드용 단말기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 공급업체인 부가통신망(VAN) 업체나 카드사도 단말기 설치는 가맹점이 결정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서로 단말기 설치를 미루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도 단말기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 가맹점에 IC카드용 단말기를 모두 설치하려면 2000억~3000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범죄 예방이라는 IC내장 카드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결국은 비용 부담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에게 IC내장카드용 단말기 설치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은행·카드사·가맹점 등 관련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IC카드로 바꿔 카드의 위·변조를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만 교체한다고 위·변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도 카드의 위·변조를 막으려고 신용카드를 IC카드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용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자 난감한 분위기다.

카드사, VAN사, 가맹점 등에 단말기 설치를 독려하고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직접 VAN사를 감독할 수는 없어 카드사를 통해 단말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고 종종 카드사, VAN사들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단말기 설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얼룩진 본관 유리창 7일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차 광주공장 본관 앞에서 '임단협 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연 노조원들이 본관 건물에 달걀과 물병을 던지며 무력시위를 했다. 직원들이 달걀이 터져 얼룩진 본관 유리창 밖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아차 노조 광주서 무력시위

"타임오프 교섭촉구" … 사측 생산차질 우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한도)를 놓고 기아자동차 노사가 7일 광주공장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노조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고, 사측은 생산차질을 비판하며 준법의지를 강조했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이날 노조 전임자와 광주지회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서구 내방동 광주공장 본관 앞에서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8차례나 교섭을 요구했는데 모두 거절당해 노조를 투쟁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역대 최대 이익을 낸 기아차는 '회사의 도약을 노조가 무산시키려 한다'고 거짓 선전을 하면서 노사 상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본관 건물에 달걀을 던지고 준비한 현수막에 조합원들의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반면 회사 측은 노조의 실력행사로 생산차질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공장의 경우 6월 특근 손실만 5000여대, 7월에도 특근 거부로 63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특근은 밀린 주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당초 이변이 없는 한 6월에 월 4만대 돌파라는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었는데 특근 거부로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벤처기업 '강했다'

불경기 불구 1000억 이상 매출 150% 증가

디에스알제강·케이씨·뉴모텍 등 5개社로

광주·전남 벤처기업들은 강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1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지역 벤처기업이 150%나 증가했다.

7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인 '벤처1000억클럽'에 가입한 광주·전남지역 업체는 2008년 2곳에서 지난해 5곳으로 늘어났다.

전남의 디에스알제강(매출 1283억원)과 케이씨(1018억원)는 2년 연속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새로 '1000억클럽'에 가입한 지역 벤처기업은 광주 하남공단의 뉴모텍과 하남전기, 전남의 재원산업 등 모두 3개 업체였다.

모터 제조업체인 뉴모텍은 지난해 매출액 1248억원으로 전년(935억원)보다 33.4%(313억원) 증가했다. 하남전기는 958억원에서 1115억원으로 16.3%(157억원)의 매출 신장율을 나타냈다.

여수산단에 있는 재원산업은 792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38.8%(308억원)의 신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강원(2곳)에 이어 꼴찌였다. 서울 48개, 경기 67개, 인천 14개, 부산 13개, 울산 10개, 대구·경북 17개, 경남 20개, 대전·충청 42개 등이었다. 특히 대전·충청은 전년도 28개에서 42개로 50%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은 242개로 전년대비 19.8%(40개) 늘어났다. 매출 1조원 이상 기록한 곳은 전년에 이어 NHN가 유일했다.

매출 5000억~1조원 기업은 10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매출 3000억~5000억원 기업은 9개에서 21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매출 1000억~3000억원 기업도 182개에서 213개로 31개사가 증가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1000억 벤처기업이 늘어난 것은 산업구조와 벤처 생태계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벤처가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1000억 매출 벤처기업 현황

지역	기업명	업종	상시 근로자	매출액(억원) 2008년	2009년
광주	뉴모텍	컴퓨터/반도체 등	214	935	1,248
〃	하남전기	컴퓨터/반도체 등	213	958	1,115
전남	디에스알제강	음식료/(비)금속 등	101	1,430	1,283
〃	재원산업	에너지/의료(기) 등	143	792	1,100
〃	케이씨	에너지/의료(기) 등	187	1,003	1,018

농협 봉선동지점 '총화상'

3년 연속 평가 전국 1위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광주 남구 봉선동지점(지점장 지용구)이 '농협 창립 제49주년 및 통합 제10주년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총화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총화상은 친절봉사·인화단결·경영성과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합에 주는 상이다.

봉선동지점은 3년 연속 종합업적 평가 전국 1위에 올랐고, 소외된 이웃들에 매년 10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후원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675.65 (-9.29)

▼ 코스닥지수 486.41 (-1.00)

▲ 금리 (국고채 3년) 3.90% (+0.06)

▲ 원·달러 환율 1,223.00원 (+0.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5조

반도체·LCD 호황에 사상 첫 돌파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4~6월) 실적이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37조원, 영업이익은 5조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매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13.8%, 영업이익은 87.3% 증가한 수치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1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은 6.8%, 영업이익은 13.4% 각각 늘어났다.또 상반기 누계 예상치는 매출 71조6천400억원, 영업이익 9조4천1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7.1%, 187.8%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익 5조원의 벽을 깬 것은 통상 2분기가 전자업계의 계절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윈도7 출시에 따른 PC 교체수요 증가와 세계적인 스마트폰 열풍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깜짝 실적'의 최고 효자노릇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규모 15위

작년 GDP 8325억달러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5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5위권내 있는 호주, 인도, 캐나다 등은 순위를 앞당기며 한국과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8천325억달러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1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달러표시 명목 GDP 순위는 2003년 11위에서 2004년 12위, 2005년 13위, 2006년 14위로 해마다 뒷걸음쳤으며 2007년에는 전년과 같은 14위에 머문 뒤 2008년에 다시 15위로 하락했다.

/연합뉴스